

빈순삽함의 독해 원리를 '글읽기'로 확장·완결

# 읽기의 방향

흐름은 오른쪽이고, 돌아오지 않는다.

고3 학평·모평·수능 **대의파악 지문**으로 배우는, 문항이 아니라 **글읽기**로서의 독해 — 15챕터.



## 고2 · 고3 | 리딩 이론편

해석은 되는데 방향이 흔들리는 학생을 위한, 대의파악을 글읽기로 다시 세우는 이론서

# 읽기의 방향

빈순삽함의 독해 원리를 '글읽기'로 확장·완결 · 리딩 이론편

|           |                                           |
|-----------|-------------------------------------------|
| 초판 1쇄 발행  | 2026년 7월 9일                               |
| 초판 2쇄 발행  | 2026년 7월 24일                              |
| 지은이       | 정성봉                                       |
| 기획·편집     |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
| 펴낸이       | 정성봉                                       |
| 펴낸곳       | 제이앤유아카데미                                  |
| 주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
| 전화 · 전자우편 | 010-2782-0745 · code_of_english@naver.com |
| 출판등록      | 356-2025-000052                           |
| ISBN      | 979-11-220305-4-9 (53740)                 |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펴낸곳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 지문은 전국연합학력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본문에 표기한 정답률은 **EBS 오답률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정답률 = 100 - 오답률). 소수점에서 반올림했으며, 조회 시점(20 년 월 기 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차

---

## PART 0 · 읽기의 대원칙 (1)

|            |                 |    |
|------------|-----------------|----|
| CHAPTER 01 | 오른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2  |
| CHAPTER 02 | 도치 — 어순이 뒤집혀도   | 10 |
| CHAPTER 03 | 신호어 — 방향 예약     | 18 |

## PART 1 · 문장 안의 관계 (27)

|            |              |    |
|------------|--------------|----|
| CHAPTER 04 | 문장 안의 흐름과 극성 | 28 |
| CHAPTER 05 | 부정 — 방향 꺾기   | 36 |
| CHAPTER 06 | 동의어·반의어      | 44 |

## PART 2 · 문장과 문장 사이 (52)

|            |               |    |
|------------|---------------|----|
| CHAPTER 07 | 이어가는 신호 (G→S) | 53 |
| CHAPTER 08 | 뒤집는 신호 (역접)   | 60 |
| CHAPTER 09 | 지시어·반복 고리     | 68 |

## PART 3 · 글 전체의 전개 (76)

|            |              |    |
|------------|--------------|----|
| CHAPTER 10 | 흐름의 두 축      | 77 |
| CHAPTER 11 | 전개방식 지도      | 85 |
| CHAPTER 12 | 주제를 세우는 세 구조 | 93 |

## PART 4 · 대의파악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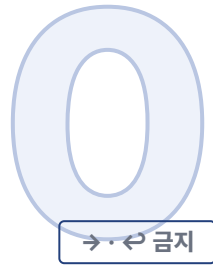
|            |             |     |
|------------|-------------|-----|
| CHAPTER 13 | 같은 주제, 네 각도 | 104 |
| CHAPTER 14 | 고3의 벽       | 111 |
| CHAPTER 15 | 통합 루틴과 실전   | 118 |

\* 각 챕터는 이론·훈련에 이어 **쌍둥이 연습 지문**을 수록. 해설은 별책에 분리 수록.

\* 지문은 전량 고3 학평·모평·수능 기출, 실제 정답을 수록.

# 읽기의 대원칙

문장의 이해 흐름은 오른쪽이고, 돌아오지 않는다



**CHAPTER 01** 오른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CHAPTER 02** 도치 — 어순이 뒤집혀도

어순 ↔ 정보흐름

**CHAPTER 03** 신호어 — 방향 예약

신호어 = 표지판

## 목적 없이 눈을 되돌리면, 흐름이 끊긴다

### BEFORE

한 문장을 읽다 막히면 앞으로 눈을 되돌렸다. 어려운 글일 수록 같은 줄을 두세 번 오갔고,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남지 않았다.

### AFTER

읽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한 방향 처리임을 안다.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며 나아가고, 목적 없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방향이 헛갈리면 앞이 아니라 신호어를 본다.

### 들어가기 첫 문장 하나로 글의 끝을 예측하기

다음은 어느 글의 첫 문장이다. 이 한 문장만 읽고, 글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예측해 보자.

2021학년도 수능 24번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시간적 현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촉각은 공간적인 만큼이나 철저히 시간에 기반한다.

- Q1.** 이 문장 안에서 필자가 버리는 생각과 밀고 갈 생각은 각각 무엇인가?  
**Q2.** 이 뒤에 이어질 글은 “촉각은 공간적이다”와 “촉각은 시간적이다” 중 무엇을 증명할까?  
**Q3.** 아직 본문을 한 줄도 안 읽었는데, 우리는 왜 답을 예측할 수 있었나?

**포인트** 우리는 **but** 하나로 글의 방향을 이미 예약했다. **but** 앞의 통념 = “촉각을 공간적 차원으로만 보는(시간성은 못 보는) 생각”, 뒤 = “촉각은 공간적인 만큼 시간에도 기반한다”. 필자는 공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성을 핵심으로 끌어올린다. 남은 본문은 전부 그 시간성을 증명하러 온다.

**개념** 대원칙 — 흐름은 오른쪽이고, 돌아오지 않는다

읽기의 기본 진행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이 책이 줄이자는 것은 재읽기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채 같은 구간을 왕복하는** 일이다. 목적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되돌아갈 일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 ① **앞을 이미 처리했다** — 한 조각씩 이해를 쌓아 왔으므로 뒤로 갈 이유가 없다.
- ② **다음을 예측하고 있다** — 필자가 어디로 갈지 기다리며 읽으므로, 오는 문장은 ‘확인’이지 ‘해독’이 아니다.

**목적 없는 왕복은 이해가 끊겼다는 신호다.** 같은 줄을 두세 번 오가게 된다면 원인은 대개 앞 문장이 아니라 —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럴 땐 무작정 되돌아가지 말고 **방향을 예약해 주는 장치**를 찾는다. 다만 **의미나 구문을 복구해야 할 때의 선택적 재읽기는 정상**이고 **유용하다** — 능숙한 독자도 그렇게 읽는다.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을 확인하러 가는지 모르는 왕복’이다.

**방향을 예약하는 세 장치 — 이 책의 지도**

| 장치         | 하는 일                                                        | 챕터   |
|------------|-------------------------------------------------------------|------|
| 신호어        | 내용 전에 다음 방향을 예약 ( <b>but</b> →꺾기, <b>for example</b> →내려가기) | CH03 |
| 어순(도치)     | 뒤집혀 보여도 정보 무게는 오른쪽 끝(given→new)                             | CH02 |
| 부정(not/no) | 극성( <b>+</b> )/( <b>-</b> )을 그 자리에서 뒤집는 스위치                 | CH05 |

**포인트** 들어가기 문장은 이 셋을 한꺼번에 보여 줬다 — **부정**(don't think)이 통념을 세우고, **신호어**(but)가 방향을 꺾어, 오른쪽(시간적)을 예약했다.

어휘 · temporal 시간적인 · phenomenon 현상 · spatial 공간적인 · every bit as ~ 못지않게

## 지문 들여다보기 — 오른쪽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글

2021학년도 수능 24번

정답률 53%

①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②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③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④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⑤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⑥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⑦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 풀어읽기

- ①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 as a temporal phenomenon, /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 as it is spatial.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 시간적 현상이라고 /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시간에 기반한다 / 공간적인 만큼
- ②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 to see for yourself.  
당신은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 직접 확인해 보려고
- ③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 and ask him to identify it /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친구에게 손을 오므리게 하고 / 그것을 알아맞혀 보게 하라 / 손의 어느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서
- ④ He won't have a clue / other than weight / and maybe overall size.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 무게 말고는 / 그리고 기껏해야 전체 크기 정도
- ⑤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그런 다음 눈을 감은 채로 있게 하고 / 물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라 / 그는 십중팔구 즉시 알아맞힐 것이다
- ⑥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 you've added time /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용함으로써 / 당신은 시간을 더한 것이다 / 촉각의 감각적 지각에
- ⑦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 of touch sensation.  
촉각을 복잡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에 달려 있다 / 촉각 감각의

**방향 지도 (오른쪽으로만)**

㉠ 통념 ↔ 예약    촉각을 공간적으로만 봄    ↔ but    시간성도 본질

— 방향 결정

↓

㉡㉢㉣ 증명-    손 못 움직이게 → 못 알아맞힌다 (시간 0)

↓

㉤ 증명+    손가락 움직이게 → 즉시 알아맞힌다 (시간 +)

↓

㉥ 접기    “움직임을 허용함으로써 시간을 더한 것” — 예약의 확증

↓

㉦ 주제    복잡한 촉각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에 의존

**회귀가 필요 없는 이유** — ㉠ “without moving(시간 0)→못 알아맞힘”과 ㉤ “move fingers(시간 +)→즉시 알아맞힘”은 되돌아가 대조할 필요가 없다. **오른쪽으로 읽는 순서 자체가 이미 대조**(시간 0 → 시간 +)이기 때문이다.

**‘앞부분만 읽고 되돌아온 독자’의 오답·정답 ㉠**

**정답 ㉠** Time Does Matter: A Hidden Essence of Touch — but 뒤 예약(시간적)을 그대로 덮는다.

**초점 어긋남** ㉠ Touch and Movement — ‘movement’는 시간을 더하는 수단일 뿐 주제가 아니다.

**뒤집힌 통념** ㉠ Touch Forming the Concept of Time — 촉각↔시간을 거꾸로 읽음.

## 읽기 루틴 — 이 챕터의 기본 동작

- STEP 1** 첫 문장에서 **방향을 예약**한다 — 신호어(but/however)·부정(not)이 있으면 '버릴 쪽'과 '밀 쪽'을 가른다.
- STEP 2** 오른쪽으로 흐르며 **예약한 방향이 증명되는지** 확인한다(해독이 아니라 확인).
- STEP 3** 막혀서 되돌아가고 싶으면, 앞으로 가지 말고 **가장 가까운 신호어**를 찾아 방향을 다시 잡는다. 마지막 문장에서 방향을 검산한다.

## 주의 — 이 챕터의 두 가지 실수

**함정 1** **회귀로 이해를 대신하기.** 막힐 때마다 앞 줄로 눈을 되돌리면, 방향은 못 잡은 채 같은 안개 속을 왕복한다. 목적 없는 왕복은 '이해'가 아니라 '방향 상실'의 증상이다. 무엇을 확인하러 돌아가는지 아는 재읽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연히 되돌아가는 대신 **신호어를 앵커로** 삼아라.

**함정 2** **앞부분(통념)에 눈이 머물기.** **but·however** 앞은 대개 **버릴 통념**이다. 첫 문장의 통념만 붙들면(측각을 공간적 차원으로만 보는 생각), 필자가 오른쪽에서 뒤집은 진짜 방향을 놓친다. **통념반박형**에서는 **역접 뒤를 먼저 주제 후보로 두되, 앞을 인정하고 보** 완하는 글일 수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한다.

**단계 훈련** — 읽기 훈련, 문제 풀이 아님**A. 방향 예약 (3세트)** — 첫 문장만 읽고 ㉠버릴 쪽 ㉡밀 쪽을 가르시오.

A-1 · Many people believe talent is fixed at birth, **but** research suggests it grows with deliberate practice.

A-2 · It seems obvious that more choices make us happier. **However**, an abundance of options often leaves us paralyzed.

A-3 · Genes matter. **Yet** without the right environment, a gene for height means nothing.

각 문장의 신호어에 ○, 앞쪽 통념에 취소선, 뒤쪽 방향에 밑줄을 그어 보자.

**B. 오른쪽 대조 읽기 (1세트)** — 회귀 없이, 순서 자체가 대조임을 확인.

2021학년도 수능 24번 재사용

Ask him to identify the object **without moving**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Then tell him to **move his fingers** over it. He'll identify it at once.

**과제** ㉠ '못 알아맞힘'과 '즉시 알아맞힘'을 가른 단 하나의 변수는? ㉡ 이 두 문장은 앞뒤로 되돌아가야 대조되는가, 아니면 읽는 순서가 곧 대조인가?

**C. 두 번 꺾는 글 —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기** 2020학년도 수능 23번 정답률 64%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 ... .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owever**, highly complex ... .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 Developmental biologists now know that it is really both, or **nature through nurture**.

**과제** ㉠ 부정 **do not-Nor**가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통념? 사실?) ㉡ **But**과 **however**에서 방향은 각각 어디로 꺾이는가 ㉢ 오른쪽 끝 'nature **through** nurture'가 최종 방향이다 — 이 글의 주제를 우리말 한 줄로.

어휘 · competent 유능한 ·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 · decency 예의 · nature 본성 · nurture 양육

**쌍둥이 연습** — 첫 문장 **but**로 방향을 예약하고 오른쪽으로 읽기

2017.7 학평 22번

정답률 56%

We humans share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out the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entirely born into it. We all begin in a kind of sensory chaos — what William James called an “aboriginal sensible muchness”: a more or less undifferentiated mass of sounds and lights, colors and textures and smells. When we are growing up, we learn to bring attention to certain elements and to ignore others. By adulthood, we all agree on what is “out there.” **But** let’s focus on what we ignore: so much! The patterns of pebbles in asphalt, the pitch of a radiator’s hiss, our own heart beating tangibly in our fingertips and temples. The infant has a mind unrestricted by experience: he has no expectations, so he is not closed off from experiencing something anew. \* aboriginal: 원래의 \*\* temple: 관자놀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dults, Better Learners Than Kids
- ② The Outer Space: Orders in Chaos
- ③ We Notice Less Than We Are Able To!
- ④ Common Sense: Too Important to Ignore
- ⑤ How Do Infants Build Their Attention Spans?

**읽기 과제** — 첫 문장의 **but**으로 방향을 예약하고, 오른쪽으로 그 증명이 오는지 확인하라. 되돌아가지 말 것.

## 챕터 요약

- ✓ **원칙** — 흐름은 오른쪽, 줄일 것은 목적 없는 왕복이다. 필요한 재읽기는 정상이되, 방향을 잃은 왕복은 이해가 아니라 방향 상실의 증상이다.
- ✓ **루틴** — 첫 문장에서 방향 예약 → 오른쪽으로 확인 → 막히면 앞이 아니라 신호어로.
- ✓ **주의** — 통념(신호어 앞)에 눈이 머물지 말 것. 통념반박형이면 역접 뒤가 주제이고, 인정·보완형이면 앞뒤가 함께 간다.

**셀프 훈련** 첫 문장으로 끝 예측하기 — 아무 글의 첫 문장을 읽고, 신호어·부정을 근거로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을 말할까'를 한 줄로 적어 보자. 그리고 끝까지 읽어 맞는지 확인한다. 예측이 맞을수록, 너는 오른쪽으로만 읽고 있는 것이다.

## 문장을 거꾸로 세워도, 무게는 오른쪽에 있다

### BEFORE

Not only, Never, Nor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면 주어·동사가 뒤집혀 당황했고, 해석 순서를 몰라 눈을 되돌렸다.

### AFTER

도치는 강조를 위한 문법 장치일 뿐, 정보의 무게(new)는 대체로 오른쪽 끝에 실린다(전면화·대조 초점 같은 예외도 있다). 앞에 나온 부정어·부사구는 '방향 표지'로 읽고, 진짜 정보는 뒤에서 받는다.

### 들어가기 뒤집힌 문장의 무게 찾기

다음은 주어·동사가 뒤집힌 도치 문장이다. 어순이 뒤집혀도 정보가 어디에 실리는지 확인해 보자.

2023.9 모평 24번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to access locations in cities, **but**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도시 안에서 위치에 접근하기가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다.

**Q1.** 이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무거운 정보 두 개는 무엇인가?

**Q2.** **Not only is it** — 왜 **it is not only**가 아니라 동사(is)가 앞으로 튀어나왔나? 이 도치는 무엇을 하려는 신호인가?

**포인트** 무거운 정보는 ① 접근이 덜 편리하다 ② 이동 과정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다. **Not only ... but (also) ...**는 “하나만이 아니라 둘”이라며 무게를 **오른쪽(but 뒤)**으로 밀어 쌓는 도치다. 어순은 뒤집혔지만, 정보는 여전히 왼→오른쪽으로 흐른다.

**개념** 도치는 어순만 뒤집고, 정보는 못 뒤집는다

영어의 정보 원리는 **given(구정보) → new(신정보)**다. 이미 아는 것을 앞에, 강조할 새 정보를 **오른쪽 끝에** 둔다. 도치는 이 원리를 어기지 않는다 — 오히려 **강조하려고** 특정 요소를 앞으로 끌어내고, 그 대가로 주어·동사를 뒤집을 뿐이다.

## 대의파악에서 자주 나오는 도치 5종

| 유형                 | 신호                                                        | 읽는 법 (무게는 오른쪽)                                                                                                |
|--------------------|-----------------------------------------------------------|---------------------------------------------------------------------------------------------------------------|
| 부정어구 도치            | <b>Never / Nor</b> / Rarely / Hardly / Little / No sooner | 앞 부정어 = '강한  표지', 진짜 내용은 뒤 |
| 장소·방향 도치           | There / Here / On the wall hung ...                       | 앞 = 무대(배경), 무게는 뒤의 주어                                                                                         |
| 보어 도치              | So + 형용사 ... that / Such ... that                         | 앞 = 강조된 성질, 결과는 that 뒤                                                                                        |
| <b>only</b> 부사구 도치 | Only when / Only by / Only through ...                    | 앞 = 유일 조건, 핵심은 뒤 주절                                                                                           |
| 조건 도치              | Were I ... / Had it ... / Should you ...                  | if 생략 가정 — 앞은 조건, 뒤가 귀결                                                                                       |

**한 문장으로** — 도치를 만나면 “무엇을 앞으로 끌어내 **강조했나?**”만 확인하고, **진짜 정보는 오른쪽에서 받아라**. 해석 순서를 문법책처럼 되돌리지 말 것.

어휘 · externality 외부효과 · convenient 편리한 · competent 유능한 ·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

## 지문 들여다보기 — 도치로 강조를 쌓는 두 장면

## ① Not only ... but ... : 무게를 오른쪽으로 두 번

2023.9 모평 24번

정답률 72%

**Yet, despite** the increasing level of urban mobility ..., access to places ...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 to access locations in cities, **but**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Accordingly**, many of the world's cities face an unprecedented accessibility crisis ...

## 풀어읽기

- ① **Yet, despite** the increasing level of urban mobility, / access to places /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하지만, 도시 이동성이 증가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 여러 장소에 대한 접근은 / 점점 더 어려워졌다
- ②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 to access locations in cities, / **but**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도시 안의 장소에 접근하기가 / 덜 편리할 뿐만 아니라 /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과정 자체도 / 여러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다
- ③ **Accordingly**, many of the world's cities / face an unprecedented accessibility crisis.  
따라서, 세계의 많은 도시가 / 전례 없는 접근성 위기에 직면한다

## 방향 지도 (어순은 뒤집혀도 오른쪽으로)

**Yet 역접** 이동성↑에도 접근성↓

— 방향 꺾기(CH08 예습)

↓

**Not only A** 덜 편리 **(-)** 하나

↓

**but B** 이동 과정이 부정적 외부효과 **(-)** 둘

오른쪽, 더 무거움

↓

**Accordingly** 접근성 위기

— 종합

도치 **Not only is it ...**는 “덜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라며 무게를 but 뒤(외부효과)로 넘긴다. 어순은 뒤집혔어도 읽는 방향은 오른쪽 그대로.

정답 ① Is Hyper-mobility Always Good for Cities? — 초이동성 **(+)** 통념을 뒤집는 방향(Yet + Not only ... but)을 의문형 제목으로.

## ㉔ Nor 도치 : 부정을 오른쪽으로 이어 붙이기

2020학년도 수능 23번

정답률 64%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 방향 지도 (Nor로 부정을 이어붙임)

**do not enter** 태어날 때: 유능한 도덕 행위자 아님 **-** 앞 끝단

↓

**Nor 도치** 모두가 그런 상태로 죽는 것은 아님 — Nor로 부정 이어붙임 **-** 뒤 끝단

**Nor** 뒤에서 주어·동사가 뒤집힌다(**does everyone leave**). 앞 문장의 부정(**do not**)을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확장하는 장치다. 두 부정이 '태어날 때·죽을 때'라는 양 끝단을 덮고, 다음의 **But**이 그 사이(대부분 예의를 얻음)로 꺾는다(CH01 §7 C 지문과 동일).

**포인트** **Nor / Neither**로 시작하는 도치문은 **앞 문장의 부정을 이어받는다**는 신호다. 되돌아가 앞 문장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앞의 **-**가 여기서도 계속된다"로 읽고 오른쪽으로 간다.

## 읽기 루틴 — 도치를 만났을 때

**STEP 1** 앞으로 나온 요소가 무엇인지 본다 — 부정어(Not/Never/Nor)? 장소? only 조건? So/Such?

**STEP 2** 그것을 '강조 표지'로만 받고, 진짜 정보(new)는 오른쪽에서 잡는다.

**STEP 3** Not only A but B는 B에 더 큰 무게, Nor/Neither는 앞 부정의 연장으로 읽는다.

## 주의 — 도치의 두 함정

**함정 1** 해석 순서 되돌리기. Not only is it convenient ...를 it is not only convenient로 되돌려 앞으로 눈을 보내면 흐름이 끊긴다. 도치는 그 순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읽는다.

**함정 2** 도치를 못 알아채 방향을 놓치기. 부정어 도치(Not only/Never/Nor)는 대부분 강한  신호다. 이것을 평범한 문장으로 흘리면 필자의 태도(방향)를 놓친다.

**단계 훈련** — 도치 읽기, 문제 풀이 아님**A. 무게 찾기 (3세트) — 도치문에서 '오른쪽 끝 신정보'에 밑줄.**

A-1 ·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to access locations, **but** the very process of moving generates negative externalities. (무게 두 개는?)

A-2 ·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Nor가 이어받는 부정은?)

A-3 · (일반 예) Only when we stop trying to control the outcome do we begin to enjoy the process. (유일 조건과 핵심 주절을 가르시오.)

**B. 도치 ↔ 평서문 (2세트) — 도치문을 평서문으로 되돌려 무게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

B-1 · Never before had the city faced such a crisis. → (평서문으로) → 무게 단어는?

B-2 · So difficult has access become that cities now face an accessibility crisis. → (평서문으로) → So가 강조한 성질은?

되돌린 뒤에도 신정보는 같은 자리(오른쪽)에 있음을 확인하라 — 도치는 무게의 '위치'가 아니라 '강조'만 바꾼다.

**쌍둥이 연습** — 문두 도치 + not only...but also의 무게 읽기

2022.6 모평 22번

정답률 61%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Consumer engagement levels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have simply exploded — and they show little or no signs of slowing.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not only** that their personal data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I love this restaurant-finder app on my phone, but what happens to my data if I press ‘ok’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the consumer moves from passive bystander to active participant.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 vulnerable: 상처를 입기 쉬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 ②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 ④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 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읽기 과제** — 문두 도치(Often overlooked ... **is** the consumer)에서 진짜 주어를 오른쪽에서 받고, **not only** A **but also** B의 무게를 확인하라.

## 챕터 요약

- ✓ **기호** — 어순 ≠ 정보흐름. 도치는 어순만 뒤집고, 무게(new)는 **대체로** 오른쪽 끝에 남는다.
- ✓ **루틴** — 앞으로 나온 요소는 강조 표시, 진짜 정보는 오른쪽에서. Not only...but...은 but 뒤가 더 무겁다.
- ✓ **주의** — 도치는 순서 그대로 읽되, 부정어 도치는 강한  신호로 받는다.

**셀프 훈련** **도치문의 무게 표시하기** — 오늘 지문에서 도치문을 하나 찾아, ① 앞으로 끌려나온 강조 요소 ② 오른쪽 끝 신정보를 각각 표시하라. 도치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강조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 신호어를 보는 순간, 다음 문장은 이미 예약된다

### BEFORE

신호어를 '접속사' 정도로 흘려 읽었다. 그래서 however가 나와도 앞 내용에 계속 매여 있었다.

### AFTER

신호어는 **내용을 읽기 전에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알려 주는 표지판**이다. for example이 보이면 '사례가 온다'고, however가 보이면 '꺾인다'고 예약하고 오른쪽을 기다린다.

### 들어가기 신호어만 보고 다음을 예측하기

내용을 가리고 **신호어만** 준다. 각 신호어 다음에 올 문장이 앞과 **같은 방향**일지 **꺾일지** 예측하라.

앞 문장 ... ① **For example,** \_\_\_ ② **However,** \_\_\_ ③ **Thus,** \_\_\_ ④ **On the contrary,** \_\_\_ ⑤ **In other words,** \_\_\_

Q. ①~⑤ 중 방향이 **꺾이는** 것은? **이어지는** 것은?

**포인트** 꺾임 = ②However ↔ ④On the contrary. 이어짐 = ①For example(예시) · ③Thus(결론) · ⑤In other words(재진술). **내용을 한 글자도 안 읽었는데** 우리는 관계를 예약했다.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른쪽을 읽어야 알 수 있지만, 방향은 이미 잡혔다.

## 핵심 개념 — 신호어 지도

신호어가 알려 주는 것은 **다음 문장이 앞 문장과 맺는 관계**다. 신호어가 예약하는 것은 **앞뒤의 관계 — 이어짐·꺾임**이다. 절대 극성(+) / (-)은 꺾인 뒤의 **내용**을 읽고 판정하고(CH08·10), 크기(**G**) / (**S**)는 실제 문장이 덮는 범위를 보고 따로 판정한다(CH07·10).

| 담화 기능 | 대표 표현                                                                | 읽을 때 하는 일                                                  |
|-------|----------------------------------------------------------------------|------------------------------------------------------------|
| 재진술   | in other words, that is, in short, namely                            | 앞 내용을 <b>다시 말한다</b> → 크기는 그대로일 수도, 더 크게 접힐 수도 있다           |
| 예시    |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콜론(:)                            | 앞 진술을 받칠 <b>사례</b> 를 든다 → 대체로 크기가 내려가지만, 콜론은 설명·정의·나열도 이끈다 |
| 결론·추론 | therefore, thus, hence, as a consequence, in conclusion              | 앞에서 끌어낸 <b>귀결</b> 을 말한다 → 더 큰 일반화일 수도, 구체적 결과 하나일 수도 있다    |
| 첨가    | moreover, in addition, furthermore, also                             | 같은 방향의 재료를 <b>하나 더</b> 엮는다 → 크기는 대개 앞과 나란하다                |
| 대조·역접 | <b>but, however, yet</b> ,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in reality | 방향이 <b>꺾인다</b> (+ ↔ -) → 통념반박형이면 <b>주제는 뒤쪽</b>             |
| 양보    | although, even though, despite, while                                | 앞은 <b>인정하고</b> 넘긴다 → 무게는 주절에                               |
| 인과    | because, since, so, as a result                                      | 원인과 결과를 <b>잇는다</b> →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범위를 보고 정한다                |

**핵심 원칙** — 신호어는 **관계**를 알려 주고, **크기(G/S)**는 **실제 문장이 덮는 범위를 보고 따로 판정한다**. 하나의 신호어에 하나의 크기 변화를 고정하지 말 것.

대의파악에서 가장 비싼 기능은 **대조·역접**이다. but/however/yet 뒤가 주제(A)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CH12 B→A). 신호어를 ‘관계 예약’으로 읽는 습관 하나가 **뒤집힌 통념** 오답을 막는다.

## 같은 신호어, 다른 크기

표의 '읽을 때 하는 일'이 **가능성**으로 적힌 이유는, 같은 신호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크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 비교 Thus 뒤가 늘 커지지는 않는다

㉠ Thus cutting down the trees is economically inefficient. ← 앞의 사례들을 덮는 일반 결론 **G**

㉡ Thus the mill closed in March. ← 앞 논리에서 나온 구체적 결과 하나 **S**

둘 다 **결론·추론** 관계다. 다른 것은 **그 문장이 덮는 범위**뿐이다.

### 비교 콜론(:)은 예시 전용이 아니다

**예시** Two species thrived: the otter and the beaver. ← 사례 나열, 크기 하강

**재진술·정의** The result was clear: the market alone cannot price nature. ← 앞 문장을 풀어 말한 것, 크기 유지 또는 상승

**낮선 신호어도 표지판이다** — however만 역접이 아니다. **Nevertheless · On the contrary**는 앞 내용을 뒤집는 **역접**이고, **Curiously · Ironically · Paradoxically · In reality**는 접속사가 아니라 **담화부사**다. 뒤쪽은 반전을 알릴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으니 '반전 가능성 있음'으로 예약한 뒤 앞뒤가 실제로 대조되는지 확인한다. **while**(양보/시간)과 **since**(이유/시점)처럼 한 단어가 두 기능을 갖는 경우도 문맥으로 가른다. 신호어는 **단어가 아니라 기능으로** 외운다(CH14에서 확장).

**어휘** · incentive 유인 · timber 목재 · ecosystem 생태계 · insight 통찰 · analytical 분석적인

## 지문 들여다보기 — 신호어가 미리 그려 준 흐름

2024학년도 수능 23번

정답률 54%

내용보다 신호어를 먼저 따라가면, 이 글의 방향은 세 표지판으로 다 그려진다.

Managers ... face market incentives ... for exploitation. **For example**, owners of forest lands have a market incentive to cut down trees ... **But**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 may exceed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For example**, a United Nations initiative has estimated that ... ecosystem services ... are over three times greater ... **Thus** cutting down the trees is economically inefficient ...

## 끊어읽기

- ① Managers face market incentives / for exploitation.  
관리자들은 시장의 유인에 직면한다 / 개발(착취)을 향한
- ② **For example**, owners of forest lands / have a market incentive / to cut down trees.  
예를 들어, 산림지의 소유주들은 / 시장의 유인을 갖는다 / 나무를 베어낼
- ③ **But**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 may exceed /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하지만 이 (생태) 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 넘어설 수 있다 /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 ④ **For example**, a United Nations initiative has estimated / that ecosystem services / are over three times greater.  
예를 들어, 유엔의 한 계획은 추정했다 / 생태계 서비스가 / 세 배 넘게 더 크다고
- ⑤ **Thus** cutting down the trees / is economically inefficient.  
따라서 나무를 베는 것은 /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방향 지도 (신호어만 이어도 흐름이 완성)****주장** 시장은 착취(벌목)를 부추긴다 **G**

↓

**For example** 숲 주인은 나무를 벤다

내려가기 G→S

↓

**But** 비시장 생태 가치가 목재값 초과 **↔**

꺾기 — 주제 진입!

↓

**For example** UN 추정: 생태 가치가 3배

내려가기 G→S

↓

**Thus** 벌목은 비효율

올라가기 S→G · 종합

신호어 넷(For example·But·For example·Thus)만 이어도 흐름이 완성된다. 특히 **But**에서 방향이 꺾이며 주제(비시장 가치)가 예약됐다 — 내용을 정독하기 **전에**.

**정답 ㉔**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 — But 뒤 방향.

**뒤집힌 통념** ㉔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s = But **앞** 통념. 신호어를 놓친 독자용.

**포인트** 신호어를 표지판으로 읽는 독자는 **But 하나로** 이미 정답 방향(㉔)을 예약한다. 나머지 정독은 그 예약을 확인하는 일일 뿐이다.

## 읽기 루틴 — 신호어 우선 읽기

- STEP 1** 문장을 시작하는 신호어를 먼저 본다 — 어느 **기능인가**(재진술·예시·결론·첨가·대조·양보·인과)?
- STEP 2** 관계와 방향을 **예약**한다 — 대조·역접이면 ‘앞은 버릴 통념, 뒤가 주제’로 준비.
- STEP 3** 오른쪽으로 내용을 읽어 예약을 확인하고, **그때 크기(G/S)를 판정한다** — 그 문장이 실제로 덮는 범위가 앞보다 넓은가 좁은가. 신호어가 없으면 **크기·방향 축 자체**를 신호로 삼는다(CH10).

## 주의 — 신호어의 세 합정

**합정 1** **꺾기 신호를 흘리기**. but/however/Nevertheless를 접속사로만 흘리면 방향 전환을 놓쳐 앞 통념에 갇힌다.

**합정 2** **신호어를 단어로만 외우기**. however만 찾다가 Curiously·On the contrary·In reality를 놓친다. **기능으로** 외워라.

**합정 3** **신호어 하나에 크기 하나를 고정하기**. ‘thus면 무조건 올라감, in short면 무조건 유지’로 외우면, 실제로는 좁아지는 결론이나 더 크게 접히는 요약 앞에서 틀린 지도를 그리게 된다. 신호어로는 **관계**만 예약하고, 크기는 **그 문장이 덮는 범위**를 보고 정한다.